

TV 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list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거장의 그늘에서 벗어나 나만의 스타일 찾고 싶다”



안드레이 즈비아킨체프 감독 부산영화제 첫 참가 영화 '리바이어던' 올해 칸영화제 각본상 수상

안드레이 즈비아킨체프(50)라는 이름은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생소하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세계 영화계에서 굳건히 뿌리내리고 있다. 시베리아 출생으로 러시아연극예술대학(1984)을 졸업한 그는 39세의 다소 늦은 나이에 '리턴'(2003)으로 장편 데뷔했다.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최고 작품상인 '황금사자상'을 수상하며 첫 작품부터 이른바 '짜꿌'을 터뜨렸다. 두 번째 작품 '추방'(2007)은 칸영화제 남우주연상을, 세 번째 장편 '엘레나'(2011)는 칸영화제 주목할만한 시선 부문 심사위원상을, 네 번째 영화 '리바이어던'(2014)은 올해 칸영화제에서 각본상을 받았다. '제2의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라고 불리는 그가 부산국제영화제를 처음으로 찾았다. 올해 각종 영화제에서 주목받은 '리바이어던'을 들고서다. 지난 4일 부산영화제가 열리고 있는 영화의 전당에서 그를 만났다. '리바이어던'은 한 불행한 남자의 이야기다. 땅을 빼앗으려는 시장의 위험에 맞서 싸워야 하고, 절친한 친구와 아내의 바람을 견뎌야 하는, 안팎으로 고된 인물이다. 불행은 마치 그림자처럼 어둠 가나 그를 따라다닌다. 영화는 국가권력의 폭압을 그렸다는 점에서 토머스 홉스의 '리바이어던'을, 개인의 시련을 다뤘다는 점에서 구약성서의 '욥'을 바탕으로 했다. 실제 미국에서 벌어졌던 사건도 참조했다. "주인공 니콜라이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는가?'라고 묻는 건 욥의 물음과 같아요.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런 니콜라이 개인의 비극일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비극입니다. 러시아에서 발생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이 부당한 권력에 시달리는 건, 전 세계 사람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죠."

를 볼 수 있다. 어떤 도시든 마찬가지다. 의도적으로 푸틴의 초상화를 배치하지 않았지만, 그런 초상화는 권력 위에 또 다른 권력이 있다는 걸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영화에는 밑줄이 빠져버린 바다, 해안가 절벽을 때리는 파도, 반쯤 잠긴 폐선, 개펄에서 거대한 뼈를 드러낸 고래 등의 이미지가 나온다. 쓸쓸하고 황량한 느낌을 전해준다. "바람과 대기 등의 외적 조건을 통해 관객에게 정화되는 느낌을 주었으며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흰색 고래뼈는 500kg이 나갔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제작해 북쪽 촬영지로 2~3일에 걸쳐 옮겼죠." 세계 영화계에서 주목하는 감독으로 성장했지만, 사실 그는 오랜 기간 방황했다. 대학에서 연기를 전공하고 나서 졸업 후 연기를 했으나 만족스럽지 못했다. 모스크바로 가 다시 공부를 시작했다. 연기를 하면 할수록 카메라 뒤에 서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았다. "영화를 찍고 싶었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망설이면서 시간을 허비했죠. 그러던 중 마음에 드는 소재를 찾을 수 있었어요. 그 소재를 토대로 만든 게 제 데뷔작 '리턴'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지 않는 귀환과 이를 받아들이는 두 아들의 이야기를 담은 '리턴'은 베니스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받았다. 데뷔와 함께 그는 제2의 타르코프스키라는 별명이 따라다녔다. 일단 이름이 안드레이로, 타르코프스키와 같다. 첫 데뷔작이 베니스영화제 황금사자상을 받았다는 점도 일치한다. 타르코프스키의 장편 데뷔작은 '이반의 어린시절'(1963)인데, '리턴'의 주인공 이름도 '이반'이다. "젊었을 때, 타르코프스키와 비교되는 건 좋았어요. 그러나 나이를 더 먹으면서 저만의 스타일을 찾고 싶었죠. 타르코프스키에게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러시아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났지만, 여기서 잘 모르겠네요. 제 영화의 많은 부분이 운명처럼 그와 연결돼 있습니다. 타르코프스키와 닮은꼴이라는 점 때문에 명성을 얻은 것도 사실이고요. 사람들의 생각마저 바꿀 수는 없지요."

EBS

Table with 4 columns listing EBS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including World News Review, EBS 인문학 특강, and various news and entertainment programs.

차승원 “노아는 마음으로 낳은 아들... 끝까지 가족 지킬 것”

친아버지 손배소송에 입장 밝혀

배우 차승원(44·사진)의 친아들들 알려진 프로게이머 출신 차노아(24)가 사실은 차승원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자신이 차노아의 친아버지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차승원을 상대로 손배소송 소송을 내면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에 차승원을 상대로 1억 원의 손배소송 소송을 낸 사실이 지난 5일 전해졌다. A씨는 본인이 차노아의 친아버지인데 차승원이 마치 친부인 것처럼 행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차승원의 부인 이모씨와 1988년 3월 혼인신고를 했고, 그해 5월 차노아가 태어났으며 이후 1992년 5월 이혼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차승원은 6일 소속사를 통해 “노아는 마음으로 낳은 아들이며 끝까지 가족을 지켜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차승원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차승원 씨는 22년 전에 결혼을 하였고, 당시 부인과 이혼한 전 남편 사이에 태어난 세살배기 아들도 함께 한가족이 되었다”며 “차승원 씨는 노아



를 마음으로 낳은 자신의 아들이라 굳게 믿고 있으며 지금도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또한 이번 기사로 인해 가족들이 받게 될 상처에 대해 매우 마음 아파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끝까지 가족을 지켜나갈 것임을 전해왔다”며 “차후 차승원 씨 가족과 관련한 추측, 억측성 보도가 나오지 않도록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인기 온라인게임 롤(LOL) 프로게이머로 활동한 차노아는 지난해 대마흡연혐의로 기소돼 징역유예를 선고받고 성폭행으로 피소되는 등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잇달아 구설에 올랐다. 차승원은 부인 이씨와의 사이에 딸을 낳았다.

폴 포츠, '불후의 명곡'서 임태경과 듀엣 무대

나훈아 '사랑' 편곡... 25일 방영

팝페라 테너 가수 폴 포츠(사진)가 KBS 2TV '불후의 명곡'에 출연해 트로트를 부른다. 폴 포츠는 6일 오후 진행될 '불후의 명곡' 녹화에 경연 가수 중 한 명으로 깜짝 참가한다. 이날 녹화는 '한국을 빛낸 우리의 트로트'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폴 포츠는 뮤지컬 스타 임태경과 듀엣으로 나훈아의 '사랑'을 부른다. '불후의 명곡'의 권재영 PD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나훈아의 '사랑'은 트로트이지만 클래식 편곡이 가능한 곡”이라며 “폴 포츠가 평소대로 클래식을 소화하는 것보다 좀더 재미있는 무대를 고민하다 트로트를 제안했는데 흔쾌히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2007년 영국 오디션 프로그램 '브리튼스 갓 탤런트'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스타덤에 오른 폴 포츠는 그간 내한 공연과 방송 출연 등을 통해 한국 팬들에게도 친숙하다. 지난 4일에도 내한 공연을 펼쳤다.



한편 '불후의 명곡'에는 최근 팝스타 마이클 볼튼이 프로그램 최초의 '외국인 전설'로 출연해 녹화를 마쳤다. 마이클 볼튼과 폴 포츠 출연방 송은 각각 18일과 25일로 예정돼 있다. /연합뉴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7일 (음 9월 14일辛亥)
36년생 확인되지 않았다면 절대성을 부여하지 마라. 48년생 적극적으로 수용하라. 60년생 신경 써야 할 일이 많겠다. 72년생 부담스럽다면 급격 피하는 것이 낫다. 84년생 혼란스러울 수도 있으니 간소화 하자. 행운의 숫자 : 76, 54
37년생 변동한다면 불길 해리하라. 49년생 장애물이 없으니 앞만 보고도 뛰어든다. 61년생 의연해질 필요가 있다. 73년생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은 다르다. 85년생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야 할 일 이다. 행운의 숫자 : 09, 40
38년생 어떻게 처세하느냐에 따라서 입지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50년생 미진함을 회복하는 기쁨이 있다. 62년생 불합리한 점을 방치해 둔다면 연쇄적인 모순이 발생 한다. 74년생 생산적인 관계가 된다. 행운의 숫자 : 03, 83
39년생 유용한 미래를 여는 단초를 마련한다. 51년생 연쇄적인 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63년생 매끄러운 기교가 요구된다. 75년생 맹점만 보완한다면 이전보다 훨씬 나은 국면을 조성하게 될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18, 64
40년생 본격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실책을 하게 된다. 52년생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할 문제이다. 64년생 막연하다면 절제할 수도 있어야겠다. 76년생 상황에 맞춰서 변화를 꾀해볼 필요가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35, 69
41년생 파격적인 양상을 열 수도 있으니 변화의 조짐에 주목해야만 한다. 53년생 풍성한 결실의 밑거름이 되리라. 65년생 행운이 깃들기 시작하는 형국이다. 77년생 본능적이라면 위협해지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51, 46
42년생 전체를 이해하는 거시적인 관점을 확보하자. 54년생 각각의 눈에서 벗어나야 하느니라. 66년생 일반성보다 특수성의 발현에 의미가 있다. 78년생 열린 마음으로 임해야 성사시키기 가 쉬우리라. 행운의 숫자 : 47, 59
43년생 약약은 일에 쓰고 좋은 말은 귀에 거슬리는 법이다. 55년생 가득 찬 것 같지만 막상 열어보면 텅 비어 있노라. 67년생 방심하지 않았는지 돌아켜 볼 일이다. 79년생 제반 문제의 해법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15, 72
44년생 다양한 변화를 시도해 보는 것이 옳다. 56년생 요령과 지혜를 총 동원해야 가까스로 수습할 수 있다. 68년생 평소엔 얄밟아 왔던 바가 이루어지겠다. 80년생 돌발 상황에 대처하느라고 부실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60, 06
45년생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라. 57년생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임하는 것이 중하다. 69년생 원거리로부터 오는 행운이 알려지겠다. 81년생 급격 빨리 시작해야만 겨우 끝맺을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93, 23
46년생 백 마디의 말보다 한 건의 실행이 더 낫다. 58년생 상대로부터 인정받게 되는 시점에 놓여 있느니라. 70년생 발전적 인대안을 제시하자. 82년생 속 시원한 것 보다 원만한 것이 가장 무난하리라. 행운의 숫자 : 24, 81
47년생 언행을 가려서 해야 만이 후회하지 않으리라. 59년생 인내를 통한 단련의 기회로 삼자. 71년생 원칙을 중시해야 체계가 설 수 있느니라. 83년생 반갑기는 하지만 부담스러움을 동반하고 있다. 행운의 숫자 : 33, 96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